

Eloquence
Magazine
For Creators
About Creators



May 2013 Issue

62

12,000 KRW

Cover: Heeslin Min



ILAI was founded in October 2007 by Adi Heusser and Iela Herrling. Their work is interested in the interaction between built elements and the connection to its surroundings and how those spaces can be defined through shapes, rather than just through a succession of dividing elements.

An intensive collaboration between client, architects, specialists and all those involved in the construction, coupled with their deep technical knowledge allows them to create unusually detailed and thoughtful architecture.



ILAI LLC는 Adi Heusser와 Iela Herrling이 2007년 10월에 설립한 건축 회사이다. 건축 요소들간의 상호작용과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ILAI LLC는 건축 요소들이 어떤 형태로 공간을 이루고 있는지 전체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한다. 건축과 관련된 모든 관계자들과의 협동심은 ILAI LLC의 강이 있는 전문성과 결합하여 대담히 상상하고 이러한 건축물을 탄생시킨다. ILAI LLC가 그들의 건축물 HOUSE 47 '1' 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Writer: James Potter / Editor: Juhee Kim / Images courtesy: ILAI LLC / ilai.ch

1) Photo by Felix Meisner



2,3) Photo by Lukas Wesserman



155

A house for 3200 books.

While designing this particular building, we made an effort not to think with a predisposed architectural vocabulary for as long as possible. This enabled us to keep our development process highly explorative and experimental.

Our clients have been collecting antique scientific books for many decades and their wish was to combine a house and a library. A library can be seen as a device to connect the history of thought with the present world and as such the library becomes a machine. How do you combine a machine with one of the ones of being human, the home?

The house H47°18' has been designed with thoughts about existence, division and reunion: three interlocking ideas that inform the unique relationships of the living spaces inside and outside of the house. By playing with conversation, new ways of interacting with the spaces in the home are opened up.

View, or the perspectival building.

There are visual connections throughout the house. They form and frame the spaces: each threshold is influenced by the adjacent rooms on each side. Therefore a narrative aspect of spatial relationships is formal. For example, the library office on the upper floor conveys a visual connection similar to a plane cockpit. The view from the master bedroom in the south to the main hall is shaped by the gate through a window over an internal piazza and on to the fireplace.

Directions, or sometimes there is no need for a wall

The main hall is formed by the succession of kitchen, dining area, sitting area around the fireplace and finally, the massive, double-height library. These spaces flow from a subtle change in orientation, meaning that there is a sense of open and purpose but no introduction of final divisions between them. Floor and ceiling levels shift throughout the house and emphasise the movements and therefore the subjective horizon.

Heights, or the most extreme experience in architecture

The main hall is also accentuated by two, three-step differences in elevation, the same as the terrace outside. However, inside the house this movement underlines the aforementioned divisions between spaces/function. On the outside this dividing feature becomes an element of mediation between the corresponding levels in the garden and the clear distinction of built and natural topography.

Thresholds, or how to unite

Some of the spaces are framed in ways that create the ceiling heights to vary, continuing in the adjacent walls and thus forming a through-way. The first plane is such an element and adds to the proportion of the sitting area. In the guest room the underside of the terrace stairs are sculpted into the ceiling and form a passageway in connection with the surrounding walls. This creates a special division, but does not separate between the living and sleeping areas, thus adding to the generosity of the space.

Topology, last but not least

The most important thing for us is to create a sense of place, a connection between the building and the location. Architects in Switzerland often use topology when designing, which we find very limiting as topology is only marginally about space, rather it deals mainly with the succession and order of the functions of the spaces. The house H47°18' is formed out of the topography and therefore it creates its own topology, interlocking it with its site.

The construction of the house took 15 years, and another 15 years were spent beforehand on the design and the meticulous detailing needed to achieve this level of work. Most detail solutions were custom made. For example the sliding doors, the library lighting system and the stairless steel window frames. It was a big part of the design process to find the best possible solution for each problem, and as we had amazing clients with a researcher's curiosity, this potential was used to the fullest.

While designing the fifteen different wooden and four Corian furniture pieces we had the possibility to apply our sense of design in a completely different scale. And in a way not only the furniture was custom built, but the whole house acts as a habitable custom built environment.

Description & Intention House 47°18'

5,000권의 서적을 보유한 의뢰인을 위한 집

우리는 이 특별한 건물을 설계하면서 가급적 우리 의 직업에 영향을 줄 만한 건축적 형식들을 고려하지 않으려 했다. 그 뒤에 대단히 탐구적이고 실험적인 일 설계 프로세스를 유지할 수 있었다.

수십 년 동안 고된 과학 서적들을 수집해 온 우리 의 의뢰인들은 집과 도서관이 하나로 결합된 장치를 원했다. 도서관은 역사와 현재를 이어주는 장치 의도였고, 어떤 형태의 구조로도 볼 수 있다. 그런 구조와 인간 삶의 핵심 요소를 결합시킨 것이 바로 이 건물이다.

H47° 18' 는 공간과 분할, 재결합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설계되었다. 그 위에서 서로 맞닿아는 네 가지의 아이디어들을 통하여 다양하고 대체로 일상 환경을 구현하고 있다.

부모는 시간적 연결고리

이 집의 공간들을 연결하는 시간적 요소들이 있다. 그것들은 공간을 형성하고 분할한다. 서로 맞닿아 있는 공간들을 나누고 있는 각각의 문지방이 그 요소들 중 하나이다. 따라서 그러한 공간간의 관계 속에서 내러티브적 측면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잊혔던 도서관 사무실은 시각적으로 비형식적 조형성과 유사한 느낌을 준다. 남반으로 뒤쳐져 있는 북부 침실과 메인 홀에서는 창문을 통하여 내부 의 넓은 회랑과 복도까지 시야가 열려 있다.

베지터는 벽이 필요 없는 공간

여간 좋은 부엌, 식당, 바나나가 있는 휴식공간, 그리고 2층 놀이와 거대한 도서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공간들은 베지터 측면에서 미묘한 변화를 지속시킨다. 이는 공간들 사이에 청명한 분할이 부재하는 공간과 육체화에서 기인한다. 바닥과 천장의 높이는 각각의 공간마다 달라지고 이것이 공간의 본질적 측면을 강조하면서 주관적인 시야를 갖게 한다.



높이는 가장 극단적인 건축적 경험

높이는 가장 극단적인 건축적 경험이다. 주요 공간을 형성하는 공간들도 있다. 벽 난으로 그러한 역할을 하는 요소로서 휴식공간의 연결을 보여 준다. 게스트룸의 천장은 테라스 계단의 아래면과 붙어 있어, 발을 올리면 벽과 연결되는 통로가 생기게 된다. 이것은 계도층의 공간적 분할을 만들어 내는 동시에 창을 통한 공간과 연결하는 공간을 분리시키지는 않으면서 공간적 관용을 더하고 있다.

문지방은 통하는 방식

천장의 높이를 다르게 하거나 벽을 계속 이어 줄 때 벽을 만드는 식으로 형성하는 공간들도 있다. 벽 난으로 그러한 역할을 하는 요소로서 휴식공간의 연결을 보여 준다. 게스트룸의 천장은 테라스 계단의 아래면과 붙어 있어, 발을 올리면 벽과 연결되는 통로가 생기게 된다. 이것은 계도층의 공간적 분할을 만들어 내는 동시에 창을 통한 공간과 연결하는 공간을 분리시키지는 않으면서 공간적 관용을 더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위의 요소를 뜻지 않게 중요한 지향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정중성을 우선하고 건물과 그 위치 사이의 연관성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스미스의 건축가들은 이를 위해서 시정학을 이용한다. 이는 시정학이 공간과의 연관성이 아니라기 때문이다. 지향점은 기능의 연속성과 설계의 과정과 더 깊게 관련된다. H47° 18'는 이러한 지향점을 정중하여 설계한 집이다. 따라서 이는 주변 지형과도 일정한 관계를 갖게 된다.

이 집은 짓는데 15년 시간이 걸렸고, 그 때 앞서 설계 과정과 돌출한 세부 작업에 15년 반이던 시간을 보냈다. 대부분의 세부적인 결과물은 의뢰인의 제안에 따른 것이다. 이것이 얼마나 도서관 조명 시스템, 스탠다인 이식 창틀 등이 그런 것들이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최선의 해결책을 찾는 것은 설계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우리의 고객들은 놀랍도록 호기심이 많고 사색성이었고, 문지방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과정에서 그들의 문화적 호기심을 충분히 도모하였다.

우리는 나무 가구를 15cm, 인조대리석 가구를 4cm씩 디자인하면서, 건물 표면에는 옹골대 나무 소재를 이용하여 공간의 디자인을 설명할 수 있었다. 이를 계로, 가구일 때조차도 최대한 크고 이리저리 돌릴 수 있는 테이블이 가해질 수 있도록 저희를 환영하게 할 수 있다.



1500
1500